

2024. 4. 29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

문화재관리과장

김건태

02-2133-2650

문화재관리팀장

빈재석

02-2133-2652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www.unhyeongung.or.kr/>
상단(프로그램)→좌측(전체 프로그램)

고종과 명성후의 혼례의식 되살아나다

운현궁, <고종·명성후 가례 재현> 행사 5.4.(토) 열려

- 운현궁, 고종과 명성후가 실제로 가례를 치른 ‘노락당’에서 가례 재현
- 여섯가지 혼례 의식 ‘육례’(六禮) 중 주요의례인 ‘비수책’, ‘친영’ 해설과 함께 선보여
- 궁중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무료 관람 가능

□ 서울시 운현궁(종로구 삼일대로)은 2024년 <고종·명성후 가례 재현>행사를 5.4.(토) 오후 2시부터 약 50분간 진행한다. ‘가례(嘉禮)’는 왕실 가족의 혼례를 일컫는 말이다.

○ 운현궁은 고종이 즉위하기 전, 12세까지 살았던 곳이자 명성황후와 가례를 치른 곳이다.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저로서 정치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매우 유서 깊은 곳이다.

□ <고종·명성후 가례 재현>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례 의식을 직접 재현하여 시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궁중문화를 생생하게 보고, 듣고,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운현궁의 대표 행사다.

- 1866년(고종 3년) 왕비로 책봉된 명성후 민씨가 운현궁 별궁인 노락당(노락당(老樂堂))에 거처하면서 궁중예법과 가례(왕실 혼례) 절차를 교육받고, 그해 음력 3월 21일 거행된 15세의 고종과 16세의 명성후 민씨의 국혼례를 재현한다.
- 왕실 가족의 혼례인 ‘가례’는 ‘육례(六禮)’라고 하여 총 6가지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으나, 이번 행사에서는 두 가지 대표 의례인 ▲ 비수책과 ▲ 친영의례를 중심으로 재현한다.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추가하여 진행한다.
 - ▲ 비수책 의식은 왕비로 책봉된 명성후가 책봉 교명을 받는 의식이며, ▲ 친영(親迎)은 고종이 예비 왕비의 거처인 별궁에 친히 거동하여 명성후를 맞이하는 의식이다.
- 고종과 명성후의 가례 의식을 직접 보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현장에 방문하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.
 -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운현궁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기타 문의사항은 운현궁 관리사무소(☎02-766-9090)으로 문의하면 된다.
 - 운현궁 누리집 : www.unhyeongung.or.kr
 - 운현궁 인스타그램 : @unhyeongung_official
- 김건태 서울시 문화재관리과장은 “날씨 좋은 봄날, 고종과 명성후의 혼례 장면을 직접 관람하여 궁중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운현궁의 역사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승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<고종·명성후 가례 재현> 홍보물.
- 2. 2023년 행사 사진. 끝.

붙임 1 <고종·명성후 가례 재현> 홍보물



